

호찌민: 구름 많은 맑음, 공기오염 낮음, 최대27도, 최저21도
 다낭: 소나기 최대32도, 최저26도
 서울: 맑음, 최대26도, 최저 10도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3,270.00 / 팔 때: 23,640.00
 (Vietcombank 2023.05.11 08시 기준)

한국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심각→경계"



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력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선에서 헌신해주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

(연합뉴스 2023.05.11)

4월 산업생산지수(IPP), 전월대비 3.6% ↑



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된다. IP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8%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상하수 및 폐기물처리 5.5%로 가장 높았고, 발전·송배전이 0.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산업은 2.8%, 가공제조업은 2.1% 감소했다. 1~4월 산업생산지수는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52개 지역은 증가했고 11개 지역은 감소했다. 4월 1일 현재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전월 대비 0.7% 증가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3.5% 감소했다. 세계경제의 둔화 및 다수의 국가가 여전히 통화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주요 교역국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4월까지 수출도 줄었다. 공상부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이 산업생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제조업, 특히 기계산업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베트남의 제조업 경기가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인사이드비지가 11일 보도했다. 11일 통계총국(GSO)에 발표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지수(IPP)는 전월 대비 3.6%,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했다. IPP가 올들어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4월 반등은 제조업 경

(인사이드비지나 2023.05.11)

1인당 소득 가장 높은 지역은? 빈즈엉성, 월 808만동(344달러)



베트남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 빈즈엉성(Binh Duong)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비지가 11일 보도했다. 통계총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시민 생활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당 월평균소득은 467만동(199달러)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빈즈엉성이 808만동(344달러)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호찌민 642만동(274달러), 호찌민시 639만동(272달러), 동나이성(Dong Nai) 635만동, 하이퐁시 590만동 등 순이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북부 하장성(Ha Giang)이 209만동(88달러)으로 빈즈엉

(인사이드비지나 2023.05.11)

2분기 15만개 '직업 창출' 전망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2만 8,200개를 포함하여 약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Vi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또한 2분기에 노동 시장이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38,100개, 가구 생산에서 38,000개, 기록 인쇄 및 복사에 37,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Vnexpress 2023.05.10)

고객님을 위한 신한베트남은행의 특별한 혜택

신한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신용카드 | 신한 PWM & VISA Signature 신용카드

베트남 외환보유고 연말 950억달러 돌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883억달러였는데 67억달러(7.6%)가 증가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싱가포르 애널리스트인 니샤드 마줌다르(Nishad Majumdar)의 말을 인용해 "최근 동화(VND)의 가치 상승은 개선된 대외 포지션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앙은행(SBV)이 작년에 달러 강세로 소진된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은행협회(VNBA)의 응웬 꾸옥 흥(Nguyen Quoc Hung) 사무총장은 "중앙은행은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60억달러 규모의 달러를 사들였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VN다이렉트증권(VNDirect)은 연말까지 외환보유고가 102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동화 환율은 지난 6개월동안 6% 하락해 달러당 2만3470동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이드비지나 2023.05.11)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DAILY AD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카카오페이 '신짜오베트남' (http://pt.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은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 283. 2000 | T. 028. 3511. 1075 / 1095



K-water 한국 먹는물 필터로 만든 명품 샤워기

욕실 전용 12단계 정수 필터

렌탈: 450.000 (VND)
 일시불: 4.500.000 (VND)
 1년치 필터포함 + 비타민 샤워기

녹물 소독약 세균 제거 100%

NSF 인증, 한국수자원공사, WAA, AIAA 인증

고객님에게 추천 드립니다

- 01 아토피 / 여드름 / 피부기려움증 / 탈모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고객님들
- 02 피부가 예민하시고 피부노화를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 03 녹물 잔류염소 (소독약)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100% 제거

K-water 필터는 LG 정수기에 납품하는 동일 회사의 필터 소재를 사용합니다

무료설치

국내 검사 시험 및 인증

1900.8888.49 | 한국 081.455.3849
 kwatervn | www.kwatervn.com

한주필 컬럼

골퍼의 엄살과 거짓말

엣그제 필드에서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동반자가 아직 시작 적응이 안 되어 오늘은 잘 못 칠 것 같다는 엄살을 들으며 생각난 것이 있는데, 골퍼들은 필드에서 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은 수많은 거짓말로 엄살을 부리며 골프를 즐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짓말이란 남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골프에서 거짓말이란, 얼핏 생각하기에는 스코어를 속이거나 물을 몰래 위반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행위를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보다 속인다는 말로 대체하지요. 영어로는 cheating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의 거짓말이란 상대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자신의 미흡함을 감추기 위해 그럴듯한 변명을 앞세워 자존심을 세우고 스스로의 위로를 얻기 위한 엄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엄살은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는 허허실실 작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실력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비책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실력이나 환경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실제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하여, 어제 과음을 했더니 아직도 술기운이 있다 등의 일상에 묻혀 사는 아마추어 골퍼의 애환을 핑계로 제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 변명을 미리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허리나 무릎의 통증 등 신체상의 불균형을 이유를 내세우는 변명도 있고, 골프 클럽이 자신과 맞지 않아 제 실력이 안 나온다는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모든 엄살은 자신의 본 실력이 오늘의 스코어보다 양호하다는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 골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실과 다른 허상을 지닌 슬픈 군상이 바로 우리 아마추어 골퍼입니다.

사실 골프는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 작은 공을 주먹만한 헤드 가 달린 가느다란 작대기로 드넓은 필드의 한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구멍을 찾아 고작 3-4차례 타격으로 홀인을 시킨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고도의 정확성과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일상에 빠져 사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마음처럼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힘든 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수긍하고 받아 들여야 골프 실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면 엄살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퍼의 엄살은 골프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골퍼들이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클럽을 지금처럼 자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글 못 쓰는 사람이 연필 맛을 한다는 말처럼, 골프가 안 되는 이

유를 많은 골퍼들이 클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골프 클럽이 주는 실력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클럽들이 거리를 더욱 길게 나가게 만들어 골퍼들을 유혹하지만 거리가 많이 나는 클럽으로 바뀐다고 스코어가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골퍼들은 자신의 미흡한 골프 스윙을 클럽의 교환으로 보충하려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골프 클럽 제조사가 매년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또 엄청난게 팔려나갑니다. 골퍼들의 스윙에 대한 엄살이 없다면 아마도 골프 클럽 제조사는 대부분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퍼의 엄살은 타인에게 별다른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고, 또 골프 산업을 부흥시키는 순 작용도 있으니 그리 지탄받을 일은 아니지만, 남의 동정을 구한다는 점에 권장할 일도 아닙니다.

반면에 거짓말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스코어를 속인다면 물을 교묘하게 어기는 심각한 치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코어를 의도적으로 달리 알려준다면, 경기 결과를 왜곡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성과를 과장되게 포장하는 경우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거나, 남에게 인정을 얻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의 허구를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기대와는 달리 작은 거짓말로 평판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짓말은 결코 순기능이 없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엄살과 거짓말은 선함과 어둠 사이에 모호한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엄살은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대부분 웃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거짓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골프처럼 정직과 공정을 내세우는 운동에서의 거짓말은 골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성에 대한 평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엄살과 거짓말은 누가 선이고 누가 어둠이고를 떠나서, 이런 행위를 통해 골퍼들은 일시적인 위로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발전과 만족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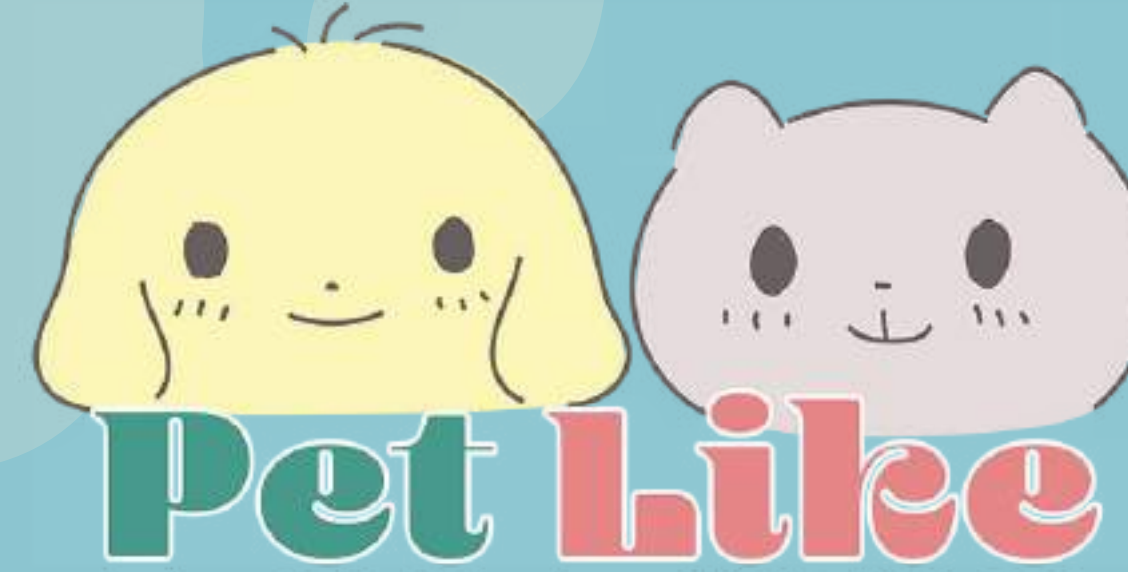
특히 머리가 희끗한 시니어 골퍼에게 엄살이나 거짓말은 절대로 어울리는 구도는 아닐 듯합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군소리 없이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가는 세련된 노익장이 바로 시니어 골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살이 줄면 실력이 늘고, 거짓말이 사라지면 진정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베트남 최초!

원스탑(One-Stop) 종합 서비스

펫 라이크 파크



반려동물의 모든 것, 한번에 해결한다!

더운 날씨에도 청병청병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

넓은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파크

아무데서나 재울 수 없는 우리 아이들, 24시간 돌봄케어가 가능한 반려동물 전용 호텔

안심 먹거리, 신뢰 할 수 있는 위생제품 등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 샵

반짝 빛나는 털, 윤기 나는 피부를 가꾸어 주는, 반려동물 전용 미용실

우리 아이도 전문화 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배울 수 있다! 반려동물 유치원

전문적인 지식과 진심으로 진료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

PET LIKE PARK

A. 289A Liên Phường, Phước Long B, TP. Thủ Đức. T. 0909 941 883 (한국인) | 대표번호 1900 571 544

Web. petlikepark.com | Instagram. @Petlikepark
FB. @Petlikepark | KaTalk ID. petlikepark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냉동기 납품 세관 설치 전문회사 VN-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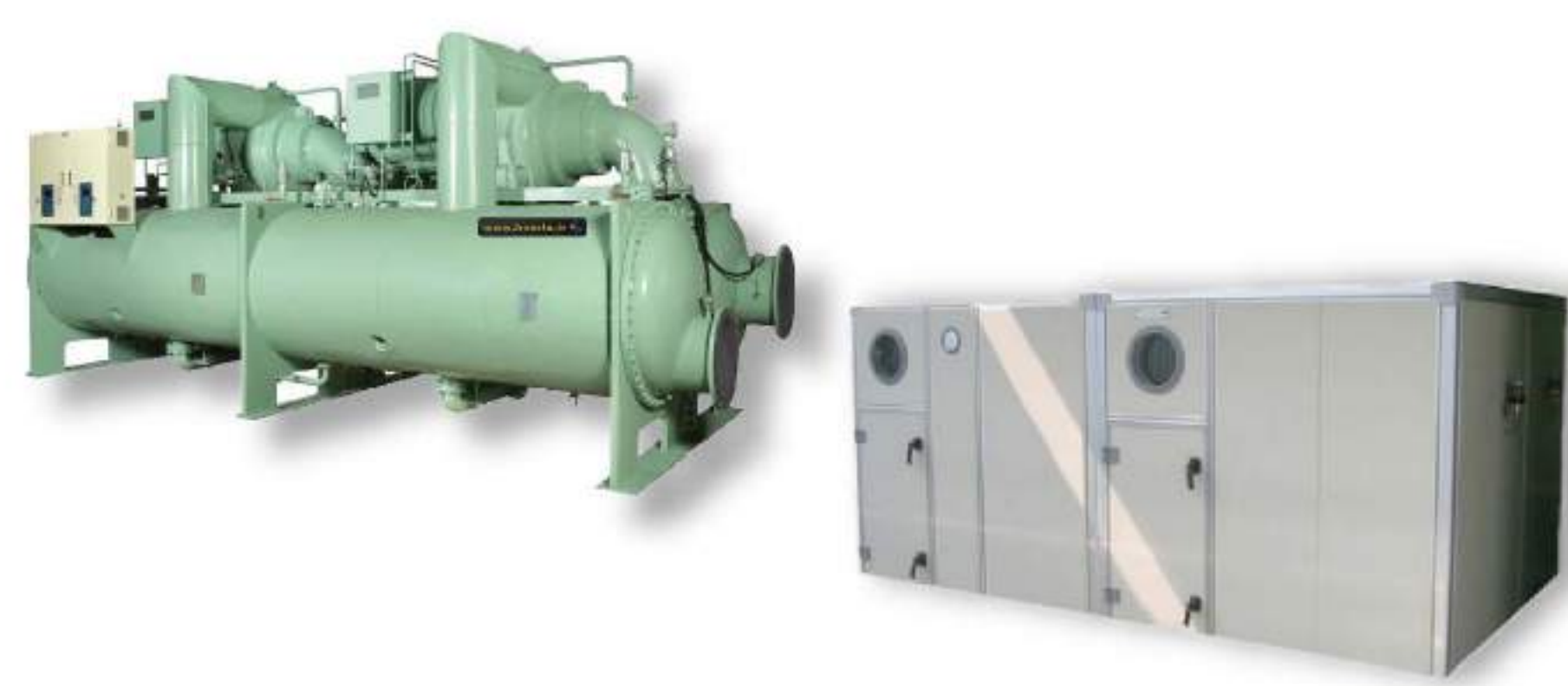


WWW.VINACENTURY.VN



베트남 세관등록 공적 대리점

착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

- 터보-스크류 냉동기
- 공기 조화기
- 대형 에어컨
- 항온 항습기
- 냉각기
- 클린룸
- 저온 창고
- 덕트, 배관 설비 등

주요 실적

- 경남 랜드마크 공기 조화기 납품
- 롯데 호텔 터보 냉동기 / 냉각기 세관 및 설치
- 하노이 방송국 터보냉동기 오버홀 및 세관
- 삼성전자 타이완엔 공장 터보 / 스크류 냉동기 반입 및 설치
- 베트남 한국대사관 공기 조화기 납품 및 시운전
- 동나이 효성공장 터보 냉동기 수리 및 오버홀
- 하이퐁 빈테스트 공기 조화기 시운전
- 한양 디지털 공기 조화기 설치 및 시운전

하노이 본사 VINA-CENTURY.,LTD

Số nhà 37, trục số 1, Đường Trần Thái Tông, T6 41, Phường Dịch Vọng,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KR : 098 591 5091 - 038 777 0621 | VN: 098 491 3986
TEL : 043-555-3646

호치민지사 VINA-CENTURY.,LTD

C8-62 Khu đô thị DTA, Xã Phước An, Huyện Nhơn Trạch, Tỉnh Đồng Nai, Việt Nam
KR : 098 591 5091 - 033 850 4395 | VN: 098 491 3986
TEL : 025-1257-2007



KaTalk ID. vncentury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AD



광고 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독방 50여곳에 배포

SNS 이용자 신원확인 추진 "온라인 범죄에 대응"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차원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응우옌 탄인 람 정보통신부 차관은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사기범죄 집단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는 교제를 미끼로 금전을 사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보이스피싱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은 베트남 현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재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한 달 전에는 틱톡을 통해 유해 콘텐츠가 배포되고 있다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23.05.10)

베트남항공 조종사 월급, 외국인의 59%에 불과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의 내국인 조종사 월급이 외국인 조종사의 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비즈니스가 11일 보도했다. 노동보훈사회부가 마련중인 '국영기업 노동자 관리 및 급여 계획(의정 20호 및 87호)'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항공 임직원 수는 조종사 981명, 승무원 3581명, 기타 총 6028명이다. 지난해 급여 지급 총액은 1조7000억 동(7240만달러), 이중 조종사 급여가 전체의 약 50%에 이른다. 특히 내국인 조종사 829명의 월 평균 급여는 8500만동(3620달러)으로 외국인 조

종사 152명 평균 1억4500만동(6180달러)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승무원 및 지상직 급여는 1950만동(890달러)이었다. 베트남항공에 따르면 2023~2025년 기간 내국인 조종사는 각각 865명, 959명, 1044명으로 증가하고, 월평균 급여는 1억1560만동(4924달러), 1억2800만동(5450달러), 1억3480만동(5900달러)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도 이 기간 외국인 조종사의 급여 2억6840만동(1만1430달러), 2억7370만동(1만1660달러), 2억7920만동(1만1890달러)의 43~4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베트남항공을 떠난 내국인 조종사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 조종사가 부족해 외국인으로 대체될 경우 1인당 급여 및 보험료 총액은 연간 25억동(10만6510달러)에 달하고, 전체 추가 비용은 연간 3000억~6000억동(1280만~256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조종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을 외국인의 70~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8000억동(3410만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이드비 2023.05.11)

베트남 북부지방, 폭염·가뭄에 저수량 '최악' 상황



긴 가뭄과 폭염으로 베트남 북부지방의 저수지들이 최악 수준으로 말라가고 있다고 인사이드비즈니스가 11일 보도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엘니뇨에 따른 전세계적 이상기후로 강수량이 줄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라이쩌우(Lai Chau), 쩌안(Trí An) 라리(Laly), 반찻(Ban Chat), 후오이썩(Huoi Quang), 쑹선(Trung Son), 부온꾸옴(Buon Kuop), 뚜어스라(Tua Srah), 스투엩(Srepok 3), 송바하(Song Ba Ha) 등 10개 수력발전소의 저수량은 위험수준

까지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서 거의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증발되는 물의 양도 많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에는 북부 탄화성(Thanh Hoa)의 최고기온이 44.1도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불볕더위로 전력소비도 급증하면서 전력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EVN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력소비량은 43.3GW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EVN은 7월까지 북부지방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소비가 국가전력망 가동 계획 범위를 초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예비전력은 45억kWh로 이는 올해 계획 대비 16억kWh, 전년동기대비로는 41억kWh 낮은 수준이다. 국립수문기상센터(NCHM)에 따르면 엘니뇨에 따른 전세계적 이상기후로 강수량이 줄고 폭염과 가뭄은 장기화되면서 저수량은 한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EVN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26~27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정오와 저녁시간대에 과도한 전력 사용 자제를 시민들에 요청했다. (인사이드비 2023.05.11)

판닌성서 15~20일 아세안-중국 회의 남중국해 문제 논의



베트남 북부 판닌성(Quang Ninh)에서 오는 15~20일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문제에 관한 아세안-중국 회의가 개최된다. 인사이드비즈니스가 10일 보도했다. 후 호(Vu Ho) 아세안고위관리회의(SOM ASEAN) 베트남대표사관장인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같은 회담 계획을 발표했다. 호 대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기간에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관한 제39차 아세안-중국 고위급회의 및 아세

안-중국 DOC 실무회의, 제27차 한국-아세안 대화 등 다수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해 분쟁과 관련해 2002년 DOC를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인 아세안-중국간 행동규범(COC)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COC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측에 COC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판민 쩌(Pham Minh Chinh) 총리는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차 대표단을 이끌고 9일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9~11일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유혈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등 역내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 2023.05.11)

베트남인 가장 선호하는 자국관광지는? '다낭' 43% 선택



베트남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자국내 관광지는 중부 해안관광도시 다낭시(Da Nang)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드비즈니스가 10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리서치업체 밀리아우인사이트(Milieu Insight)가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 관광지와 휴가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다낭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43%가 올여름 휴가지로 다낭시

를 꼽았으며, 뒤이어 북부고원지대 사파(Sa Pa) 33%, 중부해안도시 냐짱(Nha Trang) 30% 등의 순이었다. 올 여름 휴가일정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3~4일간을 꼽았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날씨, 비용, 맛집 등의 여행정보에 관심이 많았다. 한편 휴양기념일(4월29일)과 통일절(4월30일), 노동절까지 이어진 5일간(4월29일~5월3일, 대체휴일 포함)의 연휴기간동안 전국 관광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24조동(10억2400만달러)을 기록하며 모처럼의 특수를 누렸다. 이번 조사에서 각국별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필리핀은 보라카이, 인도네시아는 발리, 말레이시아는 사바(Sabah), 태국은 피피섬(Phi Phi) 등이었다. (인사이드비 2023.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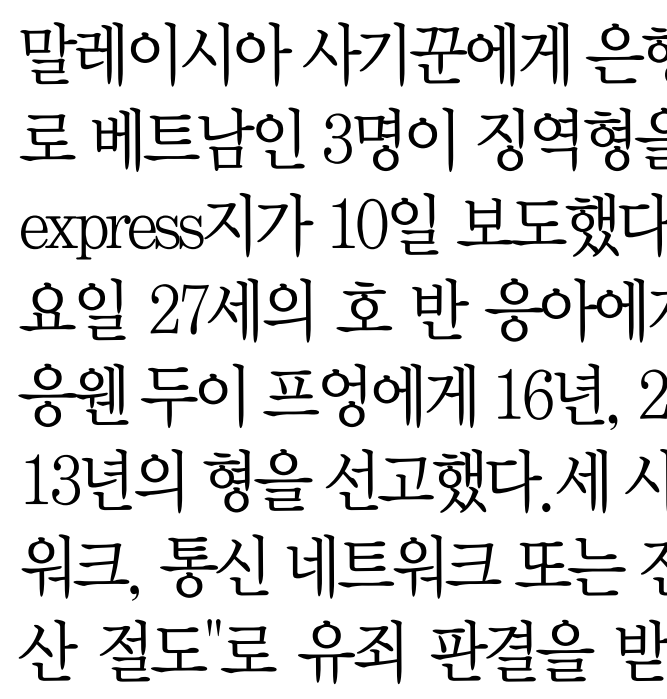
베트남 택시회사 마이린, 5년만에 흑자전환... 작년 세후이익 10억동



비나선(Vinasun)과 함께 베트남 양대 택시회사인 마이린(Mai Linh)이 5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인사이드비즈니스가 11일 보도했다. 마이린이 최근 공시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에 따르면 매출은 1조6470억 동(702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으며, 매출총이익은 4180억동(1770만달러)으로 매출총이익율 25%를 기록했다. 세후이익은 10억동(4만2600달러)으로 목표인 380억동(160만달러)에 크게 못미쳤으나 전년의 2710억동 적자에서 크게 개선됐다. 2022년말 기준 총자산은 4조1350억동(1억762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부채 비중이 약 98%에 달했다. 자본대비 부채는 43배로 늘었다. (인사이드비 2023.05.11)

은행계좌 사기 연류 된 3명 징역형 선고



말레이시아 사기꾼에게 은행 계좌를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V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다낭 인민법원은 월요일 27세의 호 반 응이에게 징역 17년, 33세의 응웬 두이 프엉에게 16년, 22세의 응웬 반 도에게 13년의 형을 선고했다. 세 사람 모두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또는 전자 장치를 사용한 채산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9월, 응

웬 티 비치 투엔이라는 사람이 응이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계좌는 각각 250만 동(106.54달러)에 판매했다. 투엔은 응이에게 잭슨 리우라는 말레이시아 사람을 소개했다. 응이하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리우에게 팔아넘긴다는 것은 당국을 가장한 사기꾼들이 사 람들을 겁주어 돈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리우를 위해 일했다고 증언했다. 응이하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에도 직접 계좌를 사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리우의 디지털 지갑으로 자금을 송금했다. 당국은 다낭, 쩌터, 빈푹에 사는 4명이 리우 일당에게 속

아 총 51억 동 규모의 사기를 실행한 것으로 적시했다. 다낭 경찰은 말레이시아에 리우에 대한 징계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들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3.05.10)

다이나믹한 태국 정세 수배 중인 탁신 전 총리, 귀국 예고



해의 도피 생활 중인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태국 총선을 앞두고 귀국을 예고했다. 이는 탁신에게 오는 14일 열리는 총선이 놓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립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탁신 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오는 7월 74번째 생일 이전에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아트

이당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걱정은 하지 마라.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쁘라웃 완오차 정부가 자리에 있는 동안 귀국한다. 모두 나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귀국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일 막내딸 패용탄 친나왓의 출산 당시에도 귀국하겠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 이번에는 생일인 7월 26일 전으로 시기를 못 박아 더 확고한 뜻을 드러냈다. AFP통신은 이번 선거는 탁신 가문이 권력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완위쉴 뽀뽀롱 랑싯내 정치학과 교수는 "곧 74세가 되는 탁신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판'"이라며 "프아트당이 압승을 거둬 정권을 잡지 못하면 그가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탁신의 딸 패용탄은 제1야당인 프아트당의 총리 후보로 나섰다. 탁신계인 프아트당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

위를 지키고 있다. 탁신 진영은 2001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번에도 프아트당이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총리 선출에는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탁신이 귀국 시점으로 언급한 7월은 총리가 선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진진당(MFP)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탁신 가문에는 부담이 된다. 진보 성향인 진진당의 피타 람짜르타 대표는 최근 총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패용탄을 추월하는 등 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완위쉴 교수는 "5년 후에는 진진당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며 "프아트당도 이번 판을 앞두고 그는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 후 총선에서는 법원이나 군부보다 진진당이 프아트당에 최대 도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인 40%가 경제적으로 불안...16%가 빈곤선"

인도네시아의 극빈층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빈곤선 아래에 머물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립뉴스가 10일 자카르타 포스트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발행된 자카르타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빈곤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천514원) 아래

인 극빈층의 비율이 1.5%라고 밝혔다. 2002년만 해도 19%가 극빈층이었지만 20년 만에 1%대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극심한 빈곤 퇴치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내년까지 극빈층 비율을 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하루 소득 기준을 3.2달러(약 4천235원)로 올린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땐 16%가 여전히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비율이 61%를 기록했던 2002

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4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층인 셈이다. WB는 또 인도네시아 절반 가까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염병이나 자연 재해, 경기 침체와 같은 충격이 올 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투 카코넬 WB 인도네시아 담당 국장은 이번 경제적 불안을 줄이려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어서다. 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연재해 등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WB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300만이 넘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인 70%가 기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나 실업급



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의무 교육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고 에너지나 농업 관련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조세 수입은 국내 총생산(GDP)의 11~12% 수준으로 일하고 있어 경기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

이스토어

이스토어가 한다

베트남 최초 미국 자몽 수입판매

FRESH GRAPEFRUIT
카카오특:KG531